



5면

전통·풍격 담긴 한옥마을 한눈에

전주매일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음 6월 2일) 제304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민선 8기 전북도정 방향 민생·혁신·실용 ‘3박자’

도지사 인수위, 도정 운영방향 발표

도민경제 부흥·농생명·희망교육 등 5대 목표

기업유치·주력산업 대전환 등 20대 핵심전략 제시

전북도지사 인수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29일 전주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중간보고회를 열고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이라는 민선 8기 전북도정 비전과 5대 목표 20대 핵심전략 등 도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29일 전주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린 전북도지사 인수위원회 중간보고회에서 김관영 당선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민선 8기 전북도정은 성찰에서 시작된다”며, “전북경제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이번에 출범한 김관영 도정이 전북의 잠재력을 경제성장과 민생 증진으로 연결시켜야 하며, 시대적 상황이 전북이 계속 침체되거나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역사적 갈림길에 서있다”고 했다.

이에 “민선 8기 전북도정은 시대적 전환이 열어준 기회를 선점하며, 어느 지역보다 뛰어난 변화의 열망과 힘, 전북의 성장잠재력을 도민경제 발전으로 귀결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능한 도정, 역동적인 도정,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는 변화의 도정, 도민의 역량을 결속할 전북원팀의 도정으로 진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김관영 도정은 경제와 민생 살리기를 제1의 사명으로 정립하며 오직 경제, 오직 민생이라는 경제민생 제일주의로 낮은 이념과 여야의 대결을 넘어 경제와 민생을 위해 모든 힘을 결속해내는 ‘실사구시의 실용주의’와 ‘협치의 정치’를 추구하기로 했다.

민선 8기 전북도정 운영 원칙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며, 민생 도정, 혁신 도정, 실용 도정으로 경제와 민생 살리기를 제1의 과제로 삼고 도민의 삶의 현장에서 해법을 찾으며 과감하게 실행하는 민생 도정을 펼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이어, 가장 젊은 도지사답게, 전북의 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 속도감 있고 막힌 것은 과감한 돌파구를 찾겠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전북 도정의 비전은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으로 정했다.

‘함께 혁신’은 대기업 유치를 통해 성장엔진에 불을 붙이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이며, ‘함께 성공’은 생산성 양극화와 소득의 양극화를 넘어 도내 지역 간, 세대 간 산업 간 격차를 넘어서 함께 성공하는 그림을 그려내며, ‘새로운 전북’은 전북에 오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전하고 대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땅, 청년의 미래, 유아교육의 땅, 기회의 땅이라는 전북의 비전을 담았다.

또한,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5대 목표와 20대 핵심 전략을 설정했다.

5대 목표는 △전북 도민경제 부흥 △농생명 산업 수도 △문화·체육·관광 산업 거점 조성 △새만금 도약 △균형발전 △도민행복·희망교육이다.

20대 핵심전략으로는 전북경제를 회복시키고 역동적인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업유치·민생경제 회복 △주력산업 대전환 등이 제시됐으며, 농정분야의 100년 미래 먹거리 창출 방안으로 △농생명혁신클러스터 구축, △스마트·친환경 농업 허브 등이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거점 조성을 위한 전략은 휴양·치유 관광 거점화, 문화·체육 인프라 활성화 등, 새만금 도약·균형발전 전략은 새만금 신산업·관광 복합도시 조성, 권역별 자치발전·지역활력 등, 도민행복·희망교육을 위한 전략은 든든한 복지·성평등 실현, 건강 안전망 구축, 창의·협치 교육 실현 등이 제시됐다.

은성수 인수위원장은 “20일 정도 되는 인수위 활동기간 동안 김관영 도정의 청사진 11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면서 “목표와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분과별로 추가로 발굴한 과제외와 도민들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들은 민선 8기가 시작되면 더욱 세밀한 검토를 거쳐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당선인은 “지금 우리 전북도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절박하고 엄중하다. 전북도민의 헌신과 노력에도 전북 경제는 지속적으로 침체돼 있다”며 “우리는 이런 전북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 변화를 원하는 도민의 열망에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마련해준 도정운영 방향이 새로운 전북을 향한 첫 걸음이 될 거라 확신한다.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 그 비전을 향해 이제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배우자 오경진씨가 29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8년간의 도백 여정, 40년 공직인생 마무리

송하진 전북도지사 퇴임식

“고향을 위해 일 할수 있어 큰 복을 받게 돼”

도청 직원 등 최소 인원 참석 간소하게 진행

제34~35대 전라북도지사를 역임한 송하진 도지사의 퇴임식이 29일 오전 10시 30분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렸다.

퇴임식을 앞두고 송 지사는 오전 9시 도청 간부들과 함께 군영묘지를 방문 참배했으며 기자실을 방문해 언론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무 인수인계서에 서명하는 등 도지사로서의 마지막 일정을 충실히 마무리했다.

2014년 재선의 전주지사이었던 송 지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전북도지사에 출마, 당선되었으며, 2018년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재선에 성공해 지난 8년간 전북도정을 이끌었다.

임기 중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 새만금 풍서도로 완공,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등 본격적인 새만금 내부개발의 신평탄을 쏘아 올렸고, 탄소법 개정과 탄소산

업진흥원 건립, 효성의 대규모 투자 협약 체결 등 탄소산업의 국가산업화에 이바지했다.

GM군산공장 폐쇄로 허약해진 자동차 산업을 전북 군산형 일지리와 수소자동차 산업으로 전환했고, 문을 닫았던 군산조선소를 5년 만에 재가동하는 데 성공하며 기존 주력산업을 혁신하는 기틀을 다졌다.

또한, 탄소산업 중심의 전주형 일자리, 농생명식품산업 기반 익산형 일자리 등을 비롯해 홀로그램, ICT, 금융 산업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을 발굴, 육성했으며, 농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삼락농정을 통하여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농민공익수당,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도입 등 농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했고 식품·종자·미생물·ICT농기계·첨단농업 등을 거점으로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을 추진하는 등 전북농업의 경쟁

력을 크게 높였다.

아울러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상황 동안 행정명령 이행시설 지원금 지급,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감염 방지와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데에도 노력했다.

전북 역대 도백(道伯) 중 최초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았으며, 이례적으로 회장직을 연임하는 등 전북 정치의 위상을 높였고, 특유의 위유내강형 리더십을 발휘하여 전북 찾기와 전북 자존의 시대 선표를 주도하는 등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송 지사는 이날 퇴임사를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내 나라와 전라북도라는 내 고향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어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회고하며 “이제 능력있고 자랑스러운 후배들이 더 새로운 꿈을 키워가며 전북을 알차게 가꿔갈 것이라 믿고 기도하겠다.”라는 축복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퇴임식은 소란스럽지 않게 떠나고 싶다는 송 지사의 바람에 따라 전라북도청 직원 등 최소인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김경수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